

고백을 통한 설교 -설교에서의 자기의 적절한 사용을 지향하여-

안 태 길*

〈실천신학·전임강사〉

오늘날 설교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설교에서의 개인의 정보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일 것이다. 고백적인 설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시대를 거스러올라갈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길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의 “자기” 소개일 것이다. 비록 설교에서의 자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짧은 글로 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논구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고백을 스토리 신학의 한 장르로 보고 1장에서는 스토리 신학의 토대 위에서 고백적인 설교와 기독교 신앙을 논하고, 2장에서는 고백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은 고백적 설교를 해석학적 입장에서 간단히 논하고, 4장은 설교에서의 자기 노출에 대한 대표적인 설교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살펴본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설교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5장은 결론으로 설교에서의 자기의 건전한 사용을 주창한다. 본고를 통해 설교에서의 목회자들의 자기 정보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고양되기를 희망한다.

* 유학중

I. 스토리 신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앙은 스토리화된 실체이다. 하나님은 스토리(the Story)로 자기를 노출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의해 정의된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야기(the Story)와 그 이야기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기독교 설교에 의해 규정된다. 기독교 신학과 설교에 스토리 신학과 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이해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스토리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성경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권위 있게 증거한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성령의 능력하에 인간 역사의 공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삶 가운데에서 계속한다. 찰스 라이스(Charles Rice)는 “이야기를 말하는 행위는 기독교 계시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곧,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행위 속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개인과 그 개인의 사건을 목격할 자들 속에서 계시되어 오셨다”고 주장한다.¹ 인간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the Storyteller)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된다. 조지 스트룹(George W. Stroup)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또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고백”에 반드시 보태어져야 하는 천상의 영역에 있는 어떤 다른 언어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하는 것은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순간들, “고백”이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치지 말아야 하는 순간들, 고백의 지평선이 독자와 청자의 지평선과 충돌할 때…… “고백”이란 인간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이다.²

¹ Charles Rice, “The Preacher as Storyeller,”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1(1976), 190.

² George W. Stroup,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Recovering the Gospel in the Church*(Atlanta: John Knox Press, 1981), p. 241. 여기서 스트룹은

이어서 스트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서 상기 요점을 한층 강조한다.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은 “고백”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고백”은 하나님의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고백”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³

진실로 하나의 고백은 “계시가 그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과 같다.”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의해 정의된다. 교회가 이 스토리에 의해 통치되는 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존 나본(John Navone)은 “공동의 스토리의 의미에 대한 공동적인 이해없이 그리고 그 스토리의 가치에 대한 공동적인 참여 없이 공동체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⁵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교회에 공동의 기억, 공동의 삶, 세상에 대한 공동의 사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이상을 제공한다. 나본(John Navone)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스토리의 일부이다……(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신앙의 규범이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타당하다.⁶ 고백은,

“고백”(confession)과 “그리스도인의 설화”(또는 이야기체; Christian narrative)라는 용어를 인간의 체험을 묘사하는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한다. 비록 약간의 편집상의 변화가 수반되지만, 본고는 narrative 를 confession 으로 사용할 것이다. 스트룹은 고백의 정의를 정확하게 “지평선들의 융합”(the fusion of horizons), 또는 우리가 한 본문의 의미를 인지하는 담론적인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한스 가다머의 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논한다. 해석자들이 본문에 접근할 때, 편견, 선입관, 전이해, 지평선들을 본문에 갖고 오기 마련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해석자는 그들의 지평선들을 본문의 지평선과 “융합”(fuse)하든지 “물입”(merge)하게 된다. 스트룹은 가다머의 “융합(fusion)”이란 개념보다 “충돌”(collision)을 선호한다. 그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이해와 정의에 있어서 보다 단순하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인도 이에 공감한다. 참조;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New York : Seabury Press, 1975), pp. 245~74.

³ *Ibid.*, p. 245.

⁴ *Ibid.*, p. 170

⁵ John Navone and Thomas Cooper, *Tellers of the Word*(New York : Le Jacq Publishing Co., 1981), p. 247.

⁶ John Navone, *The Jesus Story : Our Life as Story in Christ*(Collegeville, MN. : The Liturgical Press, 1979), p. 22.

그것이 나사렛 예수와 연관된 것인 한, “온전한 그리스도”(Whole Christ)⁷의 스토리가 되며, 기독교 공동체를 계속 개혁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로서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⁸ 그러나 그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의한 엄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탁월한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인간에게 가능하며 마땅히 되어야 할 규범과 모범과 이상이 된다”고 한 나본(John Navone)의 주장은 적절하다.⁹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의해 규정된다. 계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의 일부로서의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는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룹은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계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는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배운다”¹⁰ 인간은 자신의 작은 스토리를 보다 더욱 큰 스토리(the Story)와 관련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성숙한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스토리는 창조의 여명에까지 거슬러올라가는 하나님의 스토리(the Story)이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의 이야기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다른 이의 고백을 들을 때, 그것은 마치 “산 인간 자료”(living human document)를 읽는 것과 같다. 임상목회 교육 운동의 창시자인 안톤 보이센은 “해석학적 학문의 결과로 역사적인 본문, 곧 신약 본문 또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 기록한 어떤 다른 자료에 두었던 것과 동일한 권위와 권리를 산 인간 자료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용어로 말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인정하였다.”¹¹ 성경의 본문처럼 개인의 자서전적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 한 개인이 자기를 고백함에 따라 그는

⁷ Navone, *Tellers*, p. 41.

⁸ *Ibid.*

⁹ *Ibid.*

¹⁰ Navone, *Tellers*, p. 53.

¹¹ Charles V.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Nashville : Abingdon, 1984), pp. 38~39.

“자기의 지평선을 재창조하게 되며, 그 범주 안에서 그 또는 그녀의 본래의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¹²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그것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들 속에서 발생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

기독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스토리 신학자들은 이 스토리의 내용이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인격을 우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곧, 인격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 그럼으로 청중과 성경적 전통 사이에서 서서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말씀의 중재적 전달 수단이 된다.¹³ 목회 신학자 찰스 저킨(Chales Gerkin)은 설교는 어떤 점에서 자서전적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 말은 전달과 내용 양자의 의미에서 모두 사실이다. 라이스(Charles Rice)는 “말-행위로서의 설교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곧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인간성을 하나님의 이야기(the Story)와 연결시킨다”고 주장한다.¹⁵ 그는 덧붙여서 말한다. “설교자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 ‘자신의 인간성’을 노출시킬 때, 회중은 다음의 고백,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다.”¹⁶ 여기서 다음의 요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설교자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한 설교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설교자의 “고백”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 후세에 전해져 온 전통의 힘, 복음 그 자체의 권위에 대한 유

¹² Navone, *Tellers*, p. 22, 25. 그리스도인 개인의 정체성과 그의 스토리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관점은 자기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존 칼빈의 이해와 유사하다. 참조 ; Stroup, *Promise*, p. 247. 그리고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l, trans. F. L. Battles(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0), I/1/1/ and 2.

¹³ Hans Van der Geest, *Presence in the Pulpit : The Impact of Personality in Preaching*, trans. Douglas W. Scott(Atlanta : John Knox Press, 1981), p. 83.

¹⁴ Gerkin, *Document*, p. 25.

¹⁵ Rice, “Storyteller,” p. 183.

¹⁶ Charles Rice, *Interpretation Imagination : The Preacher and Contemporary Literature*(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0), p. 79.

일한 출입구일 뿐이다.¹⁷

기독교 설교의 빠뜨릴 수 없는 요소로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공적으로 선포한다.

기독교 신앙은 스토리화된 실제이다. 그러나 스토리 신학도 한계가 있다. 데이빗 바트릭(David Buttrick)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 그의 말은 타당하다. “기독교 신앙은 ‘스토리’의 범주 속에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⁸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기독교의 “객관적인” 특징을 보존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바트릭은 주장한다. “함께하여 주시는 수평선적 하나님-우리의 스토리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구원받은’ 공동체의 본질에 의해 형성된 기독교 신앙에는 ‘상징적이고도 반추적인’(symbolic-reflective) 국면도 있다.”¹⁹ 기독교 신앙은, 바트릭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분의 이름”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진정한 신앙에는 개념적인 스토리의 한계를 넘는 실재가 있다. 그러나 스토리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곧, 개인의 고백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이해하며 전달하는 것이다.

II. 고백의 현상학

기독교 스토리 신학자들과 스토리 신학의 풍성한 방법론과 내용을 기독교 설교에 적용하는 학자들은 다른 이의 구두 고백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한다. 스테판 크라이츠(Stephen Crites)에 의하면, 인간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개인의 사적인 역사를 의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월을 통해 체험하는 인간의 경험의 형식적 특성은 본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²⁰ 우리가 어떤

¹⁷ Van der Geest, *Presence*, p. 82.

¹⁸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Nashville: Abingdon, 1987), p. 13.

¹⁹ *Ibid.*, pp. 13~14.

²⁰ Stephen Crites, “The Narrative Quality of Exper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39(1971), p. 291.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한정된 세계와 의식의 틀 안에서 설정된 “현세의 이야기들”에 의해 그리고 또한 자기, 세계에 대한 감각, 곧 현실에 대한 무의식적 인지와 적응 감각에 대한 다른이의 감각을 표현하는 그들의 “현세의 이야기들”에 의해 관계를 맺게 된다. 크라이츠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적 특성을 3가지로 요약한다. “성경의 이야기, 현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일시적인 형태의 경험 그 자체-이 3가지 발자취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진로에 각각 계속적으로 반추하며 영향을 준다.”²¹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화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존 나본은 이렇게 말한다. “이야기의 구성 인자는 의식이며, 이야기의 정의는 인간이 무엇이나에 관한 것이다.”²² 우리가 다른 이의 삶의 고백을 들을 때에,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 공감의 감정으로 걸려 들게 되는(hooked)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고백들은 자기 계시적인 특징이 있다. 스탠리 호우에라스(Stanley Hauerwa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보다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을 전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데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한 혼잡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수반한다.²³

표면적으로, 고백은 “한 화자가 주의를 다하여, 지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애정을 갖고, 관용을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삶의 기술을 터득한 정도를 암시해 준다.”²⁴ 보다 심층적으로는, 복잡한 개인의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의 화자와 그 청중에게 대한 요구 사항

²¹ *Ibid.*, p. 305.

²² Navone, *Tellers*, p. 36.

²³ Stanley Hauerwas, “Story and Theology,” *Religion and Life*(1976), p. 344.

²⁴ Navone, *Tellers*, p. 48.

으로 보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고난을 맞이하는 화자의 인지력, 상상력, 통찰력, 이해력, 취미, 정서의 심도, 용기와 헌신을 알 수 있다.²⁵ 진실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고 책임성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 도덕적 성숙과 성장에 필수 조건이다.”²⁶ 어떤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의 됴됨이를 나타내 준다.

고백의 현상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고백자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구두에 의한 고백에는 청자의 책임성도 수반된다. 반 데르 기스트(Van der Geest)는 스토리는 청자의 상상력을 강화시켜주므로, 스토리의 책임성은 분담되며, 그리고 스토리는 대인간의 사건이라고 주장한다.²⁷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도 계시적인 성격이 있다. 곧,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대인간의 행위인 고백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해석은 해석자를 해석한다.”²⁸ 고백은 스토리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 모두의 책임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인간의 사건이다.

하나의 고백을 하고, 듣는 행위 속에서 발생하는 지평선의 충돌에는 변화를 위한 잠재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본은 다른 사람의 스토리는 “우리의 지평선을 변형시키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지력을 통합시키며, 우리의 가치관의 크기를 변경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로얄티(loyalty)와 열망을 추상적인 개념적 사고를 훨씬 능가하는 방법으로 재교육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²⁹ 자신의 책, 『예수의 스토리와 그리스도 안의 스토리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나본은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들은 인간의 다양성과 독특성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 다른 이가 대신한 삶에 양한 개인적 증거를 더욱 깨닫게 된다”³⁰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고백은 청중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다. 로버트 맥가피 브라운(Robert McAfee Brown)은 청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저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해”³¹라는 생

²⁵ *Ibid.*, pp. 68~69.

²⁶ *Ibid.*, p. 49.

²⁷ Van der Geest, *Presence*, p. 130.

²⁸ *Ibid.*, p. 51.

²⁹ *Ibid.*, p. 80.

³⁰ Navone, *Jesus*, p. 16.

³¹ Robert McAfee Brown, “My Story and ‘The Story’,” *Theology Today* (1975), p. 166.

각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이가 어떻게 고백하는 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통한다면, 나에게도 통하게 될” 것이다.³² 이처럼 고백은 변형시키는 힘이 있다.

고백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며 유지시키는 잠재력이 있다. 나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이 안전을 느끼는 기초는 우리가 듣고 말하는 이야기들이다.”³³ “이야기들 속에는, *cor ad cor loquitur*, 곧 마음이 마음에 말한다.”³⁴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며,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심오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하나의 스토리는 참되며 인간의 심연이 심연에 (deep unto deep) 말한다. 한스 반데르 기스트(Hans van der Geest)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동일화의 과정을 인정한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들 자신의 사람을 인식하며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생각하고 공감함으로써 그곳의 상황과 인물들에게 빠져간다.”³⁵ 기스트는 “투사된 동일화”(projective identification)란 용어를 채택하여 고백이 청자와 화자 사이의 정서적 괴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화자와 공감함으로써 고백의 사건들을 체험케 하는” 지를 설명한다.³⁶ 그러한 과정은 청자에게 안정감을 촉진 증대시킨다.

그리하여 고백의 현상, 곧 한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행위는 사람들을 인간 본연의 심연에 참여시키고, 화자의 가장 깊은 심층을 노출시키며, 청자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며, 안정을 증대시키며 유지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스토리의 양식과 현상에서 본 고백은 기독교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전망이 밝다.

³² *Ibid.*, p. 170.

³³ Navone, *Tellers*, p. 36.

³⁴ *Ibid.*, p. 35.

³⁵ Van der Geest, *Presence*, p. 130.

³⁶ *Ibid.*, p. 131.

III. 고백을 통한 설교의 해석학

고백을 통한 설교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셋을 든다면 프리드리히 쉐라이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와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 및 해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이다.

현대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쉐라이에르마허는 무엇보다도 많은 글을 남긴 다작 개혁 설교가로 44년 동안 매주 설교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설교는 청중이 이미 기신자인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하였으며, 그러므로 그의 설교의 목표는 신자의 성숙과 건덕이었다.³⁷ 쉐라이에르마허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설교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동정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정통한 종교의 영역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자신이 받은 마음의 감동에 의해 영향을 끼쳐야”하는 것으로 믿었다.³⁸ 그에게 있어 설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다.³⁹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설교는 청자의 하나님 의식(God-consciousness)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방적인 반응(mimetic response)을 불러일으킨다.” 이 반응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이다.⁴⁰ 설교자 자신의 “사랑과 우정은 기독교 신앙이 반영되는 프리즘이 되며, 이러한 경험은 설교에서 사용될 은유와 유추를 제공한다.”⁴¹

그러나 그의 설교 몇 편을 간략히 조사해 보면 설교에 대한 그의 논리가 암시하는 바에 대조되는 점이 발견된다. 데브리즈(DeVries)가 수집한 15편의 설교 가운데에 “전형적으로 고백적인 설교”는 오직 한 편에 불과하며(곧, 이것은 개인

³⁷ Friedrich Schleiermacher, *Servant of the Word: Selected Sermons of Friedrich Schleiermacher*, trans. and intro. by Dawn DeVries(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p. 6.

³⁸ Friedrich Schleiermacher, *On Religion: Speeches to its Cultured Despisers*, trans. John Oman(New York: Harper, 1958), p. 155.

³⁹ Schleiermacher, *Servant*, DeVries' Introduction, p. 7.

⁴⁰ *Ibid.*, p. 7.

⁴¹ *Ibid.*, p. 11.

적인 자료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도 그의 9살짜리 아들 나다니엘(Nathaniel)의 장례식에서 한 설교이다.⁴² 슈라이어에르마허는 이 설교들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설교의 취지는 “고백적인”데, 그것은 그의 설교들이 그의 개인의 체험과 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에서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의 내 부적이고도 외부적인 삶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을 상상하고 추리하였다. 그리하여 슈라이어에르마허의 체험은 “기독교 신앙이 굴절되는 프리즘”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자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의 고백을 통한 설교에 있어 역사적인 인물을 필립 브룩스(Phillips Brooks)이다. 브룩스는 1877년 비처 강좌(Beecher Lectures)에서 “인격을 통한 진리”(truth through personality) 전달의 설교를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설교는 “반드시 목회자의 성품, 애정, 그의 지적이고도 도덕적인 존재를 통하여 나와야 한다.”⁴³ 브룩스는 설교는 “인격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완벽하게 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⁴⁴고 믿었다. 브룩스에 의하면, 설교의 권위는 한 인간을 통해 성육화될 때 명백해진다. “[설교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는 본질적인 것이 지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다.”⁴⁵

브룩스는 설교에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의 사용을 장려하였지만, 소위 “자서전적인 형태의 설교”에 대해서는 혐오하였다.⁴⁶ 브룩스에 의하면, 개인적인 사항들은 “각자의 삶의 양식에 대한 호기심은 자극하지만 거기서 혐담이 발생”하며, “억압적이며,” “개인의 특성에 대한 공격”을 영속화시키며, 그리하여 그 목회자는 “흔해 빠진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⁴⁷ 설교자는 “자신의 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그의 동료

⁴² Schleiermacher, *Servant*, pp. 209~14. 매우 감동적인 설교이다.

⁴³ Phillips Brooks, *Eight Lectures on Preaching*(London: S. P. C. K., 1959), p. 8.

⁴⁴ *Ibid.*, p. 7.

⁴⁵ *Ibid.*, p. 73.

⁴⁶ *Ibid.*, p. 116.

⁴⁷ *Ibid.*, p. 117, 121.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그리스도가 설교자에게 무엇이 되어왔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⁴⁸ 브룩스는 설교자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그러므로 반드시 솔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교자는 그의 메시지의 사실들과 그가 최선을 다해 그리고 가장 진실하게 내린 판단의 사실에 대한 그의 철학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회중에게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⁴⁹ 그러나 설교는 반드시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교제나 또는 심지어 자신의 가정 생활에 대한 노출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⁵⁰ 간단히 말해서 브룩스는 설교는 반드시 “인격을 통한 진리”를 전달해야 하지 자기 삶의 개인적인 사항을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주제와 관련된 세 번째의 역사적인 인물은 해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이다. 포스딕은 자신이 이름을 붙인 “상담적 설교”(the counseling sermon)를 통해 회중들을 향한 것이 아닌 회중 속에 자리잡은 개인을 향해 설교한 사람이다. 상담적 설교의 가장 큰 설교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며, 자신의 가족과 동시대인의 삶의 장을 관찰하고, 그리고 목회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얻은 개인적 체험에 기초한 설교자의 분명한 확신이다.⁵¹ 포스딕에 의하면, 설교를 위한 설교자의 “가장 깊은 사상의 샘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공급된다.”⁵² 포스딕은 고백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은 듣는 이들에게는 [말하는 이보다] 흥미가 적을 것 같다. 너무 자주 사용될 경우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화자에 대한 청중의 확신감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다.”⁵³ 그러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그의 설교 속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Finding God in Unlikely Places”는 제목의 설교에서 행한 자신의

⁴⁸ *Ibid.*, p. 121.

⁴⁹ *Ibid.*, p. 123.

⁵⁰ *Ibid.*, p. 135.

⁵¹ Edmund H. Linn, *Preaching as Counseling: The Unique Method of Harry Emerson Fosdick*(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66), p. 17.

⁵² *Ibid.*, p. 41.

⁵³ *Ibid.*, p. 80.

신경 쇠약에 관한 고백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자기 노출을 억제하거나(솔라이에르마허) 또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그리고/또는 실제 사용을 유보하든지(브룩스와 포스틱) 함으로 고백을 통한 설교에 종종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설교학자들은 본 주제에 대해 세 진영으로 나누어진다. 두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측과 설교에 있어서 고백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는 측,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자기 노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측이다.

IV. 고백을 통한 설교에의 찬성, 유보 그리고 반대 의견들

A. 고백을 통한 설교에의 찬성

첫 그룹의 학자들에는 존 클레이폴(John Claypool), 케니스 기블(Kenneth Gible) 그리고 프레드릭 뷰케너(Frederick Buechner) 등이다. 여기서는 클레이폴과 기블을 중심으로 다룬다. 클레이폴은 설교를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의 생각은 설교는 관계적(relational)이란 것이다. 설교는 “창조자와 피조물간에 신뢰 관계를 재확립하는” 과정에 수반된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설교자는 “근본적인 화해의 기적에 참여하게” 된다.⁵⁴ 설교는 관계적인 사건이므로,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의 은사들을 제공하고, 그 결과 청중들의 삶은 풍요롭게 될 것이다.⁵⁵ 클레이폴은 헨리 나웬의 사상을 빌려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설교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처를 정직하게 부여잡고 싸운 고통을 통해 깨달은 것을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내어놓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⁵⁶

그리고는 클레이폴은 톨리케 형식의 설교를 차용하여 다음을 주장한다. 설교

⁵⁴ John Claypool, *The Preaching Event*(Waco, TX.: Word, 1980), p. 36, 51.

⁵⁵ *Ibid.*, p. 80.

⁵⁶ *Ibid.*, pp. 86~87. Cf. Henri J. M. Nouwen,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Carden City, NY.: Image Books, 1972).

는 “선포”와 “고백”이 될 필요가 있다.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므로서 적극적으로 삶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제안을 할 때, 그것은 선포이다. 설교자가 상처 입은 동료 인간으로서 회중과 함께 서서 자신의 어두운 상처를 나눌 때, 그것은 고백이다.⁵⁷ 그에 의하면 선포와 고백은 “사건으로서의 설교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일부 딜레탕트(dilettante)가 비록 그것이 정확하더라도 존재론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학문적인 지식을 무심코 내어뱉는 것보다도”⁵⁸ 더 훌륭하게 표현한다.

자신의 저서 『설교자 야곱』(*The Preacher as Jacob*)에서 케니스 기블(Kenneth Gible)은 자서전적인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심하고 들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⁵⁹ 그러한 설교가 반드시 성경에 주어져야 할 위치나 권위를 설교자가 전횡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려고 하는 설교자의 노력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설교로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자의 사고 과정 안으로 초대해야 할 때, 그때는 고백적인 설교가 특히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⁶¹ 설교자가 고백적으로 설교를 할 때, “예상되는 침묵이 회중을 엄습한다…… [회중들은] 뭔가 중요한 것이 전해지고 있음을 직감한다.”⁶² 그는 고백을 “자기의 메타포(metaphor)나 그와 같은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자서전들로부터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self-knowledge)이다”라고 보는 살리에 테살레(Sallie TeSalle)의 주장에 동의한다.⁶³

클레이폴과 기블은 고백을 통한 설교에 무비판적으로 찬성한다.

⁵⁷ *Ibid.*, pp. 101~103.

⁵⁸ *Ibid.*, p. 88.

⁵⁹ Kenneth L. Gible, *The Preacher as Jacob: A New Paradigm for Preaching*(Minneapolis: Winston Press, 1985), p. 152.

⁶⁰ *Ibid.*, p. 68.

⁶¹ *Ibid.*, pp. 152~53.

⁶² *Ibid.*, p. 69.

⁶³ *Ibid.*, p. 29. Cf. Sallie TeSalle, *Speaking in Parables*(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B. 고백을 통한 설교의 유보

고백을 통한 설교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논한다. 일부는 설교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제임스 콕스, 프레드 크레독, 랜달 니콜스 및 찰스 라이스)이고, 다른 이들은 목회적 돌봄과 상담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들이다(헨리 나웬 및 한스 반데르 기스트). 여기서는 제임스 콕스(James W. Cox), 프레드 크레독(Fred Craddock)과 헨리 나웬(Henri Nouwen), 한스 반데르 기스트(Hans van der Geest)만 다룬다.

제임스 콕스(James W. Cox)는 “선한 경험과 적절한 겸손” 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사건을 이따금 사용하며, 비밀(confidentiality)을 지켜주는 것”은 설교자의 개인적 자료 사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본다.⁶⁴ 그러나 콕스 교수는 고백적인 설교의 약점도 알고 있다. “한 개인의 인격은 방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하나의 상자이다.”⁶⁵ 콕스는 고백을 통해 설교자가 어떤 진리도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다.⁶⁶ 그는 “저속한 비생산적인 태도로 상처를 노출하는” 고백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자신의 약점들과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약점 뿐이지 장점은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⁶⁷ 제임스 콕스는 고백이 설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또한 개인적인 고백이 설교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프레드 크레독(Fred Craddock)은 “모든 설교는 어느 정도로는 설교자에 의한 자기 노출”이므로 설교에 있어서 고백은 “두려워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해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다.⁶⁸ 그는 고백적인 설교의 “합리적인 지침”으로 성경적인 모범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곧, 예레미야, 아모스;

⁶⁴ James W. Cox, *Preaching*(San Francisco : Harper and Row, 1985), p. 164.

⁶⁵ *Ibid.*

⁶⁶ *Ibid.*

⁶⁷ *Ibid.*, p. 262.

⁶⁸ Fred B. Craddock, *Preaching*(Nashville : Abingdon, 1985), p. 23.

이사야, 호세아, 바울 등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work)이 설교자의 자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그리고 모든 표현에 대해 무조건적 백지 배서를 해 주는 것은 아니다.⁶⁹

그러나 크레독은 “자기 노출의 국면이 설교의 중심 무대로 옮겨” 갈 때 “설교는 자기의 스포트 라이트 아래에서 시들어 버리며” “청중들은 설교자가 약점들을 자랑하며 겸손한 척 장점을 고백하는 낮익은 기만의 드라마로 대접”받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한다.⁷⁰ “자기 노출이 동정 또는 용납의 기원”(plea) 일 때, “자기,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 관한 표현들이 하나의 자아의 여정, 인정을 위한 애원, 또는 하나의 사과(apology)가 될 수 있을” 때, 설교자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변명의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⁷¹ 크레독은 “실제로 설교자 자신의 관찰이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설교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자기 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⁷²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만약 설교자의 자기 이야기가 간단하고, 지나치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와 종합적으로 관련된다면 설교자에 의한 얼마간의 자기 노출은 환영한다.”⁷³

헨리 나웬은 기독교 영성과 목회 신학에 관한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신의 저서 『창조적인 목회』(Creative Ministry)에서 나웬은 설교의 과업을 특별히 목회적 돌봄의 콘텍스트에서 다룬다. 설교자는 반드시 온갖 영역에서 겪은 자기 자신의 사람의 체험을 자신을 그들의 설교자로 요청한 사람들의 임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의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용 가능해야(available) 한다. 그럴 때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

⁶⁹ *Ibid.*, p. 208. 흥미있게도 크레독은 고백적인 설교의 성경적 모범 리스트에 예수 그리스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나는 ……이요”의 노출 구절들).

⁷⁰ *Ibid.*, p. 24.

⁷¹ *Ibid.*, p. 168, 208.

⁷² *Ibid.*, p. 208.

⁷³ *Ibid.*, p. 168.

용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며, 이전에 회피하였던 삶의 체험들에 자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나웬은 다음과 같이 청중의 동일시(identification)의 순간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한 것을 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고, 당신이 분명한 어조로 말한 것을 나는 어물쩍 넘어갔으며, 당신이 최전면에 놓아 둔 것을 나는 내 마음의 맨 뒷구석에 놓아 두었으며, 당신이 손에 그토록 단단히 붙잡고 있던 것도 내 손에서는 항상 손가락들 사이로 미끄러져 새어 버리고 만다. 예, 나는 당신의 말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인간 경험의 심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은 단지 당신의 것만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당신의 통찰력도 당신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도 하다.⁷⁴

그러나 나웬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체험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험 속에 이용할 수 있기 위한 의사 소통은 반드시 강단에서 삶의 체험들을 보고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자서전적인 표현들은 정서적으로 청중들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그러한 표현들은 설교자의 유용성을 위협한다. 나웬은 자기의 고백적인 사용을 장려한다.⁷⁵

한스 반 데르 기스트(Hans van der Geest)의 기본적인 설교학적 전제는 설교에 있어서 개인적인 요소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⁷⁶ “[설교에 있어서] 내용은 본질적인 요소이다”고 주장한다. “그 본질적인 요소는 설교자와 청중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⁷⁷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한다. 그는 “예배는 실제로 구조적으로 개인적이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지

⁷⁴ Henri J. M. Nouwen, *Creative Ministry*(Garden City, NY.: Image Books, 1978), pp. 35~36.

⁷⁵ *Ibid.*, pp. 23~40.

⁷⁶ 한스 반데르 기스트는 화란의 개혁주의 목회신학자로 스위스의 임상 목회교육(CPE)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다. 그의 설교학 저서, *Presence in the Pulpit: The Impact of Personality on Preaching* 은 경험적인 연구 조사에 기초한 몇 권 안되는 설교학 교재 중의 하나이다. 그의 결론들은 CPE의 콘텍스트에서 200회 이상의 예배와 설교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⁷⁷ Van der Geest, *Presence*, p. 61.

설교자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사-신학적인(quasitheological)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반박한다. 반 데르 기스트는 그러한 주장을 “영지주의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부인하기 때문이다.⁷⁸

반 데르 기스트는 설교자의 경험, 특히 정서적인 수준의 설교자의 경험을 억압하거나 한데 묶어 빼어내어 버리는 것을 염려한다. 그러한 억제는 “아마 설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⁷⁹ 반 데르 기스트에 의하면, 억압은 대개 설교가 짐짓 “목회적인 어조”인 채하는, “개념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님에의 신앙은 자명하다”는 가정이 지배적일 때 현재한다.⁸⁰

그대신 반 데르 기스트는 “진정성”에 호소하는데 진정성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설교자가 청중에게 참 인간이 되며 보다 친밀해지는” 것을 말한다.⁸¹ 그는 설교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라고 공손하고 진지하며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므로서 설교자는 “복음의 불가해함에 놀란 자신의 감정”을 참고 견딜 수 있으며, 청중들도 “자신들과 설교자에 대한 그들의 유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설교는 “심금을 울릴 수”가 없다.⁸² 반 데르 기스트는 그러한 고백적인 설교는 권위와 신뢰성을 손상하기보다는 세워 준다고 본다.⁸³

반 데르 기스트도 고백적인 설교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설교자들이 고백을 통한 신뢰와 친밀성의 분위기를 교묘히 조종할 때, “그들은 신경성 의존성이란 올라미로 빠져든다.”⁸⁴ 일부 자기 노출적인 자료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무관하다. 즉, 청중을 당황하게 하는 정보(예, 피로) 또는 휴가중 겪은 체

⁷⁸ *Ibid.*, p. 44.

⁷⁹ *Ibid.*, p. 43.

⁸⁰ *Ibid.*, p. 141, 120.

⁸¹ *Ibid.*, p. 42.

⁸² *Ibid.*, p. 149, 77, 121.

⁸³ *Ibid.*, p. 87, 126.

⁸⁴ *Ibid.*, p. 39.

험들은 설교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⁸⁵ 반 데르 기스트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설교에 관련시키는 행위는 “기만적인 형태의 비인격적인 것”으로 “성실함에서의 타락”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 청중들은 종종 부정적으로 반응한다.⁸⁶

“어느 정도까지 설교자가 자기를 노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반 데르 기스트에 의하면, “단순한 규칙들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는 “모든 자기 노출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나, 설교자 자신의 외면적인 억압도 분명히 의사 소통에 별도움이 못됨”을 인정한다.⁸⁷ 그는 설교자들이 지리적이고 비밀적인 정보를 조심스럽게 선택할 것을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설교자의 입장 표명을 유보할 것을 권한다.⁸⁸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 데르 기스트는 다음을 주장한다.

설교자들은 자신들을 보다 개인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인간을 찾으시고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확실하게 선포한다. 선포에는 개인적인 고백이 요구된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삶의 표현과 제시는 개인에게 의도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청중들에게 영향을 끼친다.⁸⁹

C. 고백을 통한 설교에의 반대

고백을 통한 설교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설교학자는 로널드 슬리스(Ronald Sleeth)와 데이빗 바트릭(David Buttrick)으로 이들은 강단에서의 자기 노출을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고백을 통한 설교에의 반대는 대개 설교를 하나님의 자기 표현으로 간주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자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노출을 침해하거나 흐르는 것이다.

⁸⁵ *Ibid.*, p. 43.

⁸⁶ *Ibid.*, p. 83, 43.

⁸⁷ *Ibid.*, p. 147.

⁸⁸ *Ibid.*, p. 133, 105.

⁸⁹ *Ibid.*, p. 39.

슬리스(Ronald Sleeth)는 객관적인 설교가 주관적인 설교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주관적인 설교는 “실제로 청중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자기의 “밖에 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을 먼저 자기 앞에 두어야 한다.⁹⁰ 설교자의 태도, 성공 및 실패의 모든 것이 설교자의 자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있어서 초점을 차지하게 되므로 설교자는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을 삼가하여야 한다고 믿었다.⁹¹ 설교꾼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개인적인 사항들을 하나, 둘 계속하여 보태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극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므로 복음을 해친다.⁹² 만약 설교자가 자신을 ‘나(I)’로 언급한다면 거룩한 계명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슬리스는 설교자가 “회중이 의식적으로 주님을 목사와 대체하거나 또는 회중의 자기 아첨에 싫증내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것을 호소”한다.⁹³

데이빗 바트릭(David Buttrick)은 그가 지칭하는 소위 “인격-예식(personality-cult) 설교”에 반대한다.⁹⁴ 그의 『설교학』의 기본 전제들 중의 하나는 성경은 인간의 공통적인 지각(communal consciousness)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회중 속의 개인에게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적인 것, 곧 공유하는 인격을 향하여 전달되어야 한다.⁹⁵ 포스딕과 다른 학자들의 “일 대 일(one-to-one) 관점의 문제점은 예수를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인 구세주”(a personal Savior)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고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대표하는 “치료요법의 승리감”으로 약화된 인격주의를 암시한다는 것이다.⁹⁶ 바트릭은 설교자의 인격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강력하게 설득하는 힘이 있다는 사상에 반대한다.

⁹⁰ Ronald E. Sleeth, *Persuasive Preaching*(New York : Harper, 1956), pp. 12~13.

⁹¹ *Ibid.*, p. 24.

⁹² *Ibid.*, p. 30.

⁹³ *Ibid.*

⁹⁴ Buttrick, *Homiletic*, p. 459.

⁹⁵ *Ibid.*, p. 276.

⁹⁶ *Ibid.*, p. 420~21.

우리는 설교자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상으로 결코 장난질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상은 설교자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이 다소간은 설교를 통해 작용하며, 설교가 아무리 비능률적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인도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우리는 인간의 인격이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비록 그 사상이 호소력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에토스’에 의해 지지받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인격은 설교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은 복음이나 복음의 능률성을 결정짓지 못한다.⁹⁷

이러므로 바트릭은 설교에 있어서의 고백적인 자료의 사용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의심쩍어 하는 것 이상이다. “강단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⁹⁸ 설교의 서론에서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즉각 설교자에게 초점을 두게 하므로 “파괴적인” 행위이다. 결론에서도 그것들은 “청중으로 하여금 설교자를 의식하게 하므로”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⁹⁹

바트릭은 “개인적인 사항은 드물게는…… 설교의 본문에서,” 그 목적과 “우리의 설교의 궁극적인 주제가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회중과의 관계, 또는 강단에서의 우리의 편안함이 아닌 복음일” 경우에는 강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¹⁰⁰

설교에서의 고백을 사용하는 대신, 바트릭은 “자기-인신”(self-awareness)을 제안한다. 심오한 설교가 추구하는 것은 “의식의 깊은 현실들이다…… 훌륭한 설교자들은 고심하며 의식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묘사한다.”¹⁰¹ 바트릭의 주장에 의하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은 소위 “고백적인 탐구”(confessional exploration)를 적용함으로써 설교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내적 탐구의 목적은 한 개인의 경험보다는 오히려 모든 영역의 인간 경험에

⁹⁷ *Ibid.*, p. 458.

⁹⁸ *Ibid.*, p. 142.

⁹⁹ *Ibid.*, p. 94, 106.

¹⁰⁰ *Ibid.*, p. 94, 86.

¹⁰¹ *Ibid.*, p. 33.

접속하는(interface) 것이다.¹⁰²

바트릭은 우리의 경험이 “고백적인 탐구”를 통해 우리의 설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수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 사항을 익명의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가…… ? 아니다. 그러한 집회는 매우 인위적이며, 그리고 대개는 회중에 의해 의기 저상하고 만다. 해결책은 우리의 경험을 내던져 버리거나 인위적으로 비개 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경험을 회중에게 제공(offer)하고……, 개인적인 사항을 회중의 공동 의식 속에 위치시켜 회중의 감성이 자극받아 갑작스런 인식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일 것이다.¹⁰³

바트릭의 주장은 계속한다. 설교에서의 이러한 설교자의 자기 사용의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설교자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할 것이다”는 것이다.¹⁰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설교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잘 지껄여낼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뿐이다.”¹⁰⁵

V. 설교에서의 자기 노출의 종합

설교학적으로 구성된 결론 부분은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

¹⁰² *Ibid.*, p. 64, 19.

¹⁰³ *Ibid.*, pp. 142~43.

¹⁰⁴ *Ibid.*

¹⁰⁵ *Ibid.*, p. 143.

오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5~7).

본 구절은 바울이 자기의 목회를 비판하였던 자들, 곧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천거했다고 비난하였던 사람들에게 응답한 내용의 일부이다. 본문을 인용하여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찰스 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보배는 질그릇 속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쳐져 온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만약 우리의 헌신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빛이 비취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보물을 가식적으로 다루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름아닌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 그 “질그릇”의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¹⁰⁶

만약 우리가 설교의 성육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의 중요성을 심각히 고려한다면 우리는 설교에서의 고백의 중요한 역할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스토리 신학과 고백의 현상학은 강단 설교에서의 자기 노출의 가능성을 위한 자리 마련을 위해 설득력 있는 이론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스토리(Narrative)의 한 장르로서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계속 가능하게 해주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환자와 청중 양자의 개인적 정체성 발전에 통합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설교에서의 개인적 자료의 무비판적 수용과 거부하는 반 데르 기스트와 바트릭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나투스파(Docetic)나 영지주의(Gnostic)적 과오를 초래할 수가 있다. 고백적 설교의 본질적 문제들 중의 하나는 모든 고백이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설교에서의 개인적인 정보는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청중의 청중의 삶에 무관하다. 이야기 자체가 결단이 부족하고, 요점이 없으며, 아마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지나치게 간단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자기 노출은 도덕

¹⁰⁶ Rice, “Preacher’s Stoy,” p. 33.

적인 문제이므로 강단에서 개인 정보의 노출은 윤리적으로 무관하지가 않다.¹⁰⁷ 전달의 요소들 예로 설교자의 음성적 정서적 어조와 보디 랭귀지 등이 모순점을 노출하여 고백의 내용 이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고백은 화자와 청중간의 대 인간의 사건이므로 설교자가 청중의 다양한 변수들을 놓칠 경우 청중에게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 분명히 고백적인 설교는 한계가 있다.

일부 강단의 고백들이 종종 실패로 끝맺는 이유는 설교자의 영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직 설교자 자신의 경험만이 타당하다거나 또는 청중은 기독교 신앙의 모델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식의 전달에서 나타나는 교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체험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 노출에 실패하는 자기 노출 양식, 오로지 충격을 주기 위해 과도히 개인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동정, 용납, 인정 및 사과와 변명을 위한 애원 등은 모두 영적 파산에 동반하는 증상들이다.

아마도 일부 강단의 고백에 나타나는 부족한 영성의 부분적인 치유는 설교에서의 자기의 적절한 사용을 지향하는 움직임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웬, 반데르 기스트 등이 옹호하는 개념이며, 이것은 바트릭에 의해 제안된 “고백적인 탐구” 과정을 포함한다.¹⁰⁸ 자기의 적절한 사용은 모든 목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것은 테크닉이 아니다. 고백의 내용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격, 인간성에서의 우리나라오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다. 강단에서의 자기 노출은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과 주일 아침 설교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깊고, 넓은 괴리”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때문이다.¹⁰⁹ 그러나 온갖 상황의 예배에서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의 정서적 동참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목회가 자기 노출의 위험을 요구하는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 하나의 심

¹⁰⁷ Navone, *Tellers*, p. 40.

¹⁰⁸ 바트릭의 이 용어는 브룩스가 “인격을 통한 설교”에서 의도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나 바트릭이 이 말을 싫어하는 것은 아이러니칼하다.

¹⁰⁹ Rice, “Preacher’s Story,” p. 27.

오한 임무 완수의 경험이 된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고백을 준비하는 자는 설교 준비시 석의와 신학적 세부 사항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최대한의 주의를 다해 자료를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진다. 잘 준비된 고백은 적어도 다음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정상과 계곡과 평원의 체험을 전달하며, 설교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청중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포함하며, 고백의 내용에 어울리는 음성과 몸짓으로 전달되며, 청중을 사로잡는 선명성과 상상력으로 전달되며, 설교자가 산 삶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the Story)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백을 통한 설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¹¹⁰ 고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투명한” 한 인간을 구현해야 한다.¹¹¹

“당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유일 무이하게 우주적인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없이는 [예수의] 우주적인 이야기가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¹¹²

¹¹⁰ Buttrick, *Homiletic*, p. 118.

¹¹¹ *Ibid.*, p. 26. “투명성”은 미남침례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 Raymond Bailey 가 먼저 제안하고, James W. Cox 교수가 동의한 것으로 콕스 교수의 세 마나 시간에 강조된 고백적인 설교의 표준(criterion)이다.

¹¹² Navone, *Tellers*, p. 303.